

중국, 10대 민영기업 경영 “호조”

2001년 매출액 910億元 … 1위 聯想집단 매출은 328억8000萬元

중국의 2001년 매출액 기준 10대 민영기업은 聯想집단, 萬向집단, 橫店집단, 正泰집단, 德力西집단, 新華電器집단, 上海復星집단, 上海新高潮집단, 東方집단, 天正집단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국공상업연합회에 따르면, 聯想집단은 매출액, 납세액, 이윤 기준 연속 4년째로 1위를 차지했고, 2001년 매출액이 328억8000萬元에 달해 2위인 萬向집단(86억4000萬元)의 거의 4배에 달하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10대 민영기업의 2001년 총매출액은 910億元으로 집계됐다.

10대 민영기업은 매년 지방정부가 추천한 민간기업 중 선정하게 되며, 추천기준은 전국공상업연합회가 규정한 매출총액, 자산총액, 순자산액, 납세액, 이윤액,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2001년 10대 기업 후보 추천기준이 2000년 매출액 9000萬元에서 1억2000萬元으로 상승하는 등 후보기준이 큰 폭으로 강화됐으나 각 지방정부가 추천한 후보군의 수는 1998년 463개, 1999년 660개, 2000년 957개, 2001년은 1247개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1247개 민간기업 중 1-500위는 이윤액이 평균 5557萬元으로 1999년 및 2000년에 비해 각각 107%, 40% 늘어났고, 납세액은 3993萬元으로 각각 125%, 44% 증가했다.

전체 1247개 기업 중 2001년 매출액이 50億元 이상인 민영기업은 총 10개로 전년대비 3개, 5億元 이상은 286개로 129개 증가했으며, 이윤액이 5億元 이상인 기업은 4개로 1개 늘어났다.

반면, 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15개로 2001년 25개보다 다소 줄었다. 전체 평가대상기업 중 709개가 수출입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1-500위 기업의 수출액은 57억6000만달러로 1999년 및 2000년에 비해 각각 147%, 31% 늘어났다.

1-500위 기업 중 동부연해지역이 383개로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부지역은 1999년 73개, 2000년 64개에서 2001년 52개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Chemical Daily News 2002/10/21 >